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의
존재론적 해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송명옥

2021년 6월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의 존재론적 해석

지도교수 서 명 석

송 명 옥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송명옥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종우



위 원

김민호



위 원

서명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년 6월



An 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ory of Buddhist Counseling by Four Noble Truths

Myoung-Ok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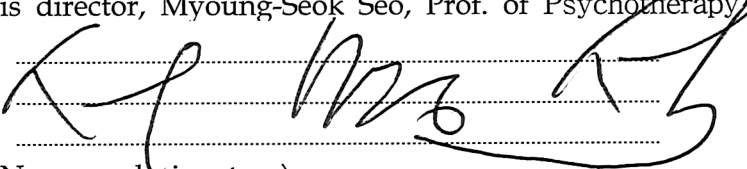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2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Myoung-Seok Seo, Prof. of Psychotherapy


.....
.....
.....
.....
.....

(Name and signature)

Date

2021. 9. 6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국문초록	iii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방법	3
II. 불교상담과 존재론	5
1. 불교의 존재론	5
2. 불교상담	7
3. 고·집·멸·도	9
III. 불교상담 사성제의 존재론적 해석	12
1. 무상한 경험적 실체	12
2. 가상적 존재	15
3. 존재의 본질	17
I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5

표 차례

<표 II-1> 마음이 세계를 구성하는 시스템	10
---------------------------------	----

그림 차례

[그림 I -1] 연구틀	3
---------------------	---

국 문 초 록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의 존재론적 해석

송 명 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서 명 석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괴로움 중의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음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한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불교상담 사성제를 통하여 고통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나’는 존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리코르 해석학의 소격화와 설명과 이해, 전유의 개념을 도구로 삼고 그 텍스트로 『붓다의 철학』을 택하였다.

불교에서 존재라고 인식되는 모든 것들은 찰나의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상호작용의 현상이다. 생멸을 거듭하는 현상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마음으로 만들어 낸 무상한 경험적 실체가 나의 존재이다. 무상한 경험

적 실체를 나의 존재로 착각하는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존재의 무상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삶의 과정에서 경험과 욕탐이 만들어 낸 관념을 나의 것이라 여기고 나의 관념에 부합하여 나만의 세계를 만든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상의 모습에서 자신의 실체를 찾고자 한다.

인간은 완전한 이미지에 자신을 투영하여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빠질수록 진정한 자신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사성제의 존재론적 해석은 현대인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자신을 투영하여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음을 깨달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존재를 깨닫고 가상적 존재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숙고의 시간을 제공한다.

※ 주요어: 불교상담, 존재론, 고통, 무아, 사성제

I. 서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어나서 나의 존재가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고통은 없을 테지만 세상은 물질, 명예, 사람을 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서광, 2018: 107).

한국의 자살률 또한 2003년 이후 15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삶의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이 만들어 낸 고통이 더 치명적임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 또한 이 통계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물질적 풍족함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가져와 주지는 못한다.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은 동질의 것이 아니다.

마음의 고통은 정신과 육체의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통은 정신과 육체 뿐 아니라 나의 존재조차도 위태롭게 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기에 그 고통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존재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근원을 알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서광, 1997: 4).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같다. ‘나’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의 허기짐은 그 어떤 물질적 충족과 향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탐하고 갈망한다. 하지만 갈망에는

고통이 따른다. 갈망하여 채운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원하고 성취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채울 수 없는 갈망은 고통스런 감정의 늪지대와 같다.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없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가에 달려있다.

불교상담 사성제에 관한 논문을 보면 허지연(2020)의 ‘사성제 중심의 불교상담을 통한 불교치료의 실제’, 김형록(2010)의 ‘고집멸도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해’, 양영애(2015)의 ‘상담 적용을 위한 사성제와 현실치료의 비교’, 정학열(2018)의 ‘사성제를 통해 본 불교 생사관 고찰’ 등이 있다. 위의 논문은 불교상담 사성제를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심리 치료적 관점과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불교상담 사성제의 상담 적용과 심리치료, 무아(無我), 공(空), 연기법(緣起法)에 관한 논문은 다수이지만 존재론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연구자는 먼저 불교철학에서 존재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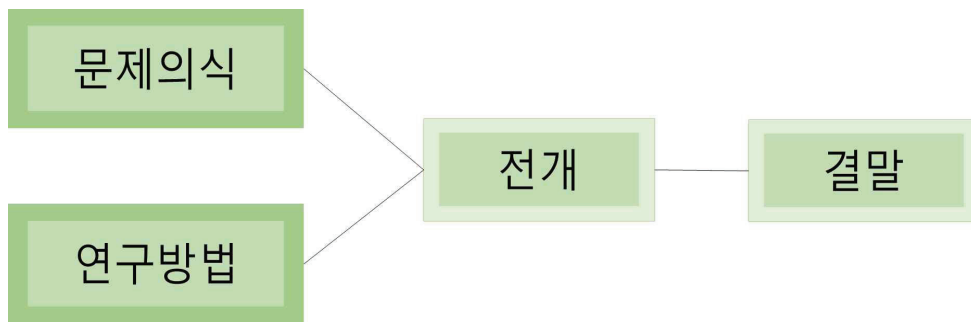
2. 연구문제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의 존재론적 해석을 위해 연구자는 불교상담과 사성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도출한다.

- 불교철학에서 존재론의 특성은 무엇인가?
-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을 통해 보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연구자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틀을 활용하겠다. 이 연구는 나의 존재조차도 위태롭게 하는 고통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폴 리콤프의 해석학을 이용한다.



[그림 I -1] 연구틀 (서명석, 2019a: 783)

해석이란 새로운 존재 양식을 탈은폐함으로써 주체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이다(김윤성·조현범, 2020: 156).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의 ‘앞에’ 전개되는 세계 내 존재의 유형을 해명하는 것이다(윤철호, 2017: 250). 그러므로 해석학에는 텍스트가 필요하다. 텍스트란 글로 고정된 담화로서(김윤성·조현범, 2020: 171) 작가와 독자 사이에 있는 필수적인 매개이다(김윤성·조현범, 2020: 152). 독자는 텍스트 자체로부터 새로운 존재 양식을 부여받음으로써 자기-투사의 능력을 확장하게 된다(김윤성·조현범, 2020: 156).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텍스트로 『붓다의 철학』을 선택한다. 『붓다의 철학』은 1991년 이종표의 박사학위 논문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를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초기경전의 교리들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입증하여 불교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였다(이종표, 2018: 13).

■ 리쾨르 해석학의 뼈대

- 소격화(distanciation) -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음.
- 설명(explanation) - 텍스트의 내적 특성 검토.
- 이해(understanding) - 해석자의 세계로 텍스트가 말하는 것에 대한 해석자의 깊이 있는 의미 발견.
- 전유(appropriation) - 담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텍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

(Ghasemi, et al. 2011: 1623 - 1629 / 서명석, 2013: 49)

소격화는 설명과 이해 그리고 전유의 과정에 수시로 드나들며 작용하는 것이며(서명석, 2013: 49) 인문 과학을 지배하는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태도이자(윤철호, 2017: 231) 모든 종류의 낯설어짐을 의미한다(김윤성·조현범, 2020: 149). 설명은 이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고(윤철호, 2017: 244), 이해는 ‘상황’(Befindlichkeit)에 대한 검증 후에 탐구되는 하나의 구조이다(윤철호, 2017: 251). 이해는 텍스트의 지시에 의해 열리는 세계-명제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윤성·조현범, 2020: 147). 전유한다는 것은 “낯설었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김윤성·조현범, 2020: 83) 전유해야 하는 것은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인지된 텍스트의 의미이다(김윤성·조현범, 2020: 153). 전유로서 해석은 하나의 사건이 된다(김윤성·조현범, 2020: 152). 연구자는 리쾨르의 해석학을 도구로 삼아 『붓다의 철학』을 독해했다.

II. 불교상담과 존재론

1. 불교의 존재론

존재론(ontology)이란 실재하는(reality) 또는 궁극적인 실체(substance)의 본질(nature)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즉 존재론이란 본질(nature)의 문제이다. 본질이란 ‘드러나-있지는-않지만-그러나-간직하고-있는’ 것으로서(서명석, 2015: 33)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그렇다면 불교철학에서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교는 ‘일체는 12입처다’라는 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설명한다. 12입처란 6가지 내적인 감각기능과 6가지 외적인 대상을 말한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마음으로 대상을 만드는 것에 근거함을 말한다. 12입처에 의존하여 분별심(육식)이 생기고 우리들의 의식세계인 18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의식 세계 안에서 경험[觸]에 의해 의식이 형성됨을 반복하면서 생긴 다섯가지 덩어리가 오온이다. 다섯가지 덩어리가 나라는 존재 오온이고 일체의 존재는 12입처로, 우리의 의식세계인 세상은 18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불교의 존재론은 5온, 12입처, 18계로 설명된다.

불교철학에서는 존재를 유[有: bhāva]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법[法: dharma]의 개념으로 본다. 법(法)이란 동일한 조건에서는 항상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법칙을 말한다.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법(法)이고 존재는 법(法)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기(緣起)란 인연[緣]에 의하여 일어나다[起]는 뜻으로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법칙이 연기법이다.

『붓다의 철학』에서 붓다는 현상적 존재의 본질을 어떤 불변의 실체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인식된 존재의 본질을 문제 삼는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호적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관념이라는 것이다. 존재를 이루는 5온 또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내용을 취착하여 계탁함으로 조작된 허구적 관념이다. 그러므로 결과로서 행위나 현상의 주체가 되는 자아의 존재는 없다. 붓다는 연기법에 의해 나타난 법의 현상으로 존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法]은 무아(無我)이고 공(空)이다.

불교철학과 서양철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진(2000)은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 이해하였으며, 특히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해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 이해와 비슷하다고 제시한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원리,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존재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충족이유율은 불교의 연기설과도 일치하는 상호의존적 생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김정현(2005)은 그의 논문에서 니체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실체로서의 대상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을 들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건의 흐름(생성) 속에서 인식에 의해 포착된 현상을 논리적 언어로 동일화하고 범주화시켜 존재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인식 또한 수많은 나의 활동의 결과 내지 총체에 대한 개념적 기호일 뿐, 사실 그 어느 것도 참다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니체의 견해는 불교의 무아사상과 명백히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관념론은 세계를 현상과 물자체 두 영역으로 나뉜다. 현상이란 눈 앞에 있는 세상이며 물자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이다. 정대성(2010)은 칸트 사상과 불교 사상의 존재론은 인식론적 구조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인간에게 펼쳐진 세계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여 알게 된 세계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지각되고 해석된 세계라는 점이다. 그러나 칸트는 물 자체 세계의 존재나 존재의 양상은 인간의 감각과 인식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보지만 불교 사상은 인간의 마음과 외부 세계의 인식론적 거리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들었다.

이상으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서양철학과 불교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존재를 인식하는 인식론적 방법에서 칸트와 유사 점이 있고 연기적 입장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충족이유율과 일치하는 점이 있으며 자아의 개념적 허구성에 관해서는 니체와 견해를 같이한다.

불교의 근본 교리를 이루는 삼법인(三法印)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멸, 변화하고 모든 것이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지므로 ‘나’라는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 나의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다. 삼법인(三法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존재론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5온, 12처, 18계로 설명되는 불교의 존재론은 무아, 공으로 귀결되고 그 주체는 ‘나의 인식’이다. 무아, 공은 주관과 객관이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바로 지금 찰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현재의 나의 인식과 행위에 중요성을 부과한다.

2. 불교상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고통과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불행이 존재한다(권석만, 2019: 21). 현대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상담(counsel)은 라틴어 consilium에서 유래되었으며 가르치다(advice), 참마음을 깨우쳐 주다(忠告)의 뜻을 포함한다. 상담은 내담자가 억압된 감정과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선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자. 이규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상담전문가가 상담 관계를 맺고, 당면한 문제해결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상담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의 발달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이규미, 2019: 16) 이 장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행동·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장호, 2005: 3). 이러한 정의는 상담이 단순한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인간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상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윤희조(2019a)는 불교상담은 ‘불교 심리학에 기반을 둔 상담’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담의 과정을 마음의 역기능적 기능을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는 마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본다. 방기연은 “불교상담은 자신이 보살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상담자]이,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내담자]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지혜를 모아 해탈과 열반을 도모하는 자리이타 활동이다.”라고 정의한다(방기연, 2000: 91).

불교상담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김말환(2007)은 불교상담을 스스로 내면의 통찰을 통해 무명을 타파하고 왜곡된 생각을 놓아버림으로써 본래 갖고 있던 참성품인 지혜와 자비의 구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깨우침의 교화과정은 오늘날 심리상담에서 볼 수 있는 무조건적 공감과 존중, 그리고 일체감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조기룡(2007)은 서구의 상담보다 불교상담이 보다 인간이 문제에 본질적임을 시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으로부터 인간소외의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자기의 무명(無明)에 있으며 그 열쇠도 자기 자신에 있으므로 자기 마음을 깨우쳐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이 인간소외를 해소하는 요체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양영애(2015)는 사성제와 현실치료의 상담 과정을 비교하여, 상담 적용을 위한 두 이론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두 이론을 비교해 본 결과 현재의 변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유사점은 있으나 목적과 문제해결 방법에서 사성제는 궁극적이고 수행적이며 현실치료는 현실 적용을 위한 문제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들었다.

일반적인 서구의 상담이나 불교상담이 고통이나 갈등이 해결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같다. 그렇지만 서구의 상담이 발생한 문

제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반면 불교상담은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본질을 깨닫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본질적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적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이은정·임승택, 2015: 429). 불교상담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은 물론 인간 존재와 고통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인간은 처한 상황에 따라 표출되는 고통의 양상이 천차만별이다. 사람마다 고통의 원인이 다르듯이 그 해결 방법에도 상황에 따른 유연함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 구조에 부합하여 판단하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연기법, 공, 무아는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내담자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이다.

3. 고·집·멸·도

고·집·멸·도 사성제(四聖諦)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그 원인을 탐색하고 고통의 소멸과 해결 방법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사성제의 시작점인 고성제(苦聖諦)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라는 명제에서부터 시작된다. 고[苦: dukkha]는 ‘힘이 드는 것’이라는 어원에서 발전한 개념으로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권석만, 2019: 464).

사성제(四聖諦)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는 과정을 12처와 18계, 축으로 설명한다. 12처(十二處)란 인간의 인식기관을 말하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과 인식의 대상을 말하는 육경 즉,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말한다. 12처에서 육식이 발생하면 분별심이 생기면서 18계(十八界)라는 새로운 의식 세계를 형성한다. 18계는 우리 마음이 세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 우리 마음이 세계를 구성하는 시스템

육근	육경	육식
눈[眼]으로	세계[色]를 보고	-> 안식(眼識)
귀[耳]로	소리[聲]를 듣고	-> 이식(耳識)
코[鼻]로	냄새[香]를 맡고	-> 비식(鼻識)
혀[舌]로	맛[味]을 보고	-> 설식(舌識)
몸[身]으로	감촉[觸]하고	-> 신식(身識)
마음[意]으로	대상[法]을 만든다	-> 의식(意識)

(서명석, 2019b: 56)

이러한 18계를 인연으로 촉(觸)이 발생한다. ‘촉’은 18계를 조건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생긴 ‘외부에 사물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중표, 2018: 237). 촉(觸)을 통해 드러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오온(五蘊)이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色)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受), 생각하고 판단하며(想) 욕망하여 행동하고(行) 분별하고 인식하는(識) 것을 말한다. ‘촉(觸)’에서 발생하여 ‘촉(觸)’에 따라서 무상하고 허망하게 변하는 것이 오온이다. 무상하고 허망한 오온을 갈애와 탐욕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오취온(五取蘊)이라 한다. 인간의 고통은 오취온을 ‘자아’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무상하고 허망한 오취온을 자아로 취하는 존재의 괴로움을 고성제(苦聖諦)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 무상하고 허망한 괴로움 덩어리인 오취온을 자아로 취하여 존재 가능성을 탐하는 것일까?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집성제(集聖諦)이다. 집[集: samudaya]은 ‘함께, 모이다’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sam’과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udaya’의 합성어로서 모여서 나타남의 의미이다.

우리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오온은 체험 덩어리를 욕탐으로 취하여 나타난 집(集)의 결과이다. 인간은 마음에서 연기한 무상한 체험 덩어리를 모아서 존재를 만들고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과 발생

에 대한 근원적 설명이자 존재의 실상에 대한 설명이 연기법이다(권석만, 2019: 464). 연기법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 체험 덩어리가 존재로 인식되고 체험의 증장을 통해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허망한 생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멸성제(滅聖諦)는 고성제와 집성제에서 알아차린 괴로움의 실체와 원인을 깨달아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고통과 구속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을 얻는 것을 말한다. 열반이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nibbāna)’의 음역으로 ‘붙어서 꺼진 상태’로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지칭한다(서명석, 2019: 792).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여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도성제(道聖諦)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결 방법으로 팔정도를 말한다. 팔정도는 우리가 마음의 경험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더욱 근본적인 실천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덟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서광, 2018: 56). 팔정도는 곧 열반으로 가는 길이자 삶의 방식이다.

- ① 정견(正見): 바른 견해[삶이 고통을 동반하고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과 팔정도를 따라가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
 - ② 정사유(正思惟): 바른 생각[자기 자신이 팔정도를 따라가는 것에 헌신함]
 - ③ 정어(正語): 바른 말[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발설하고 진리를 말함]
 - ④ 정업(正業): 바른 행동[계율과 신심에 따라 인생을 삶]
 - ⑤ 정명(正命): 바른 삶[타자를 해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타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함]
 - ⑥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온화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수행함]
 - ⑦ 정념(正念): 바른 인식[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존재하고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 세계에 대해 잘 깨닫고 있음]
 - ⑧ 정정(正定): 바른 선정[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지혜를 계발하는 것을 훈련함]
- (서명석, 2019b: 67)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집결된다. 고·집·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은 무지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方便일 뿐, 괴로움이 소멸한 후에는 버려야 할 뗏목과 같은 것이다(이중표, 2019a: 251). 사성제는 너와 내가 좀 더 사랑하면서 살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온전하게 즐기면서 마무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자 실천 수행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다(서광, 2018: 35).

Ⅲ. 불교상담 사성제의 존재론적 해석

1. 무상한 경험적 실체

실존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존재자’라는 의미에서 인간존재를 ‘현존재(現存在 · Dasein)라고 부른다. 존재에 대한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우리들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이기상·구연상, 2008: 211).

『붓다의 철학』에서는 작용적 계기와 대상적 계기를 통해서 발생하여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은 시간적인 지속성을 지니고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지각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무상한 일시적 현상임을 이야기한다. 오온(五蘊)으로 표현되는 존재의 실상 또한 동사적 행위로써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존재자’가 아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作者)는 없다’라는 말은 자아가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현존(現存)임을 의미한다. 현존은 항상 업(業), 행위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현존은 반드시 보(報)하는 현존으로 존재하게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불교의 존재는 찰나의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발생 소멸하는 상호작용을 항상(恒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순간의 지속적인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나의 육체에 생각과 느낌이 깃들여 있고 그것이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고 그 존재를 소유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된 ‘나’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갈망으로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나[五取蘊]’는 본질적으로 무상하여 존속하지 못한다. 5취온을 자아로 취하고 있는 한 존재의 괴로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불교철학에서 공(空)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 고통의 근원을 고정불변하고 실체

가 없는 찰나의 모습에 영원성을 부여함에 두기 때문이다. 공(空)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전현수, 2018: 146). 공(空)은 구체적 실체가 없는 무상함이다.

무상(無常)은 ‘영원한’을 뜻하는 ‘nicca’에 부정접두사 ‘a’가 붙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나’는 시간과 공간성을 가지고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통해 끊임없이 발생 소멸하는 일시적 현상을 ‘나’라고 존재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같은 몸(色)과 의식(受·想·行·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몸은 계속 변하고 있고 의식은 순식간에도 변한다. 이렇게 한순간도 지속하지 못하는 현상을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경험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존속할 것이라 여기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무상함이다. 그러므로 불교철학에서 존재는 자신의 마음으로 만들어 낸 무상(無常)한 경험적 현상의 집합체이다.

무상함 속에서 영원을 갈망하는 것은 고통이다. 불교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음은 『반야심경』의 도입부에 있는 구절이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넜다[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이 글귀는 우리 몸과 마음이 ‘고정불변하는 근원적 실체 없음.’ 즉 ‘공’을 깨달으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통, 그 고통에서 파생하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됨을 말한다(서명석, 2019a: 786-787). 우리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업의 결과일 뿐 실체가 없다는 무상함을 아는 것이 바로 공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무한히 변해가는 연기적 존재이다. 현존은 업의 결과로 존재한다.

인간은 과거로부터의 경험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로부터 미래에 나를 형성해 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어리석

은 인간은 과거의 경험과 고통이 현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는 사라져 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라져 버리고 오지 않는 것은 현재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이다.

2. 가상적 존재

불교는 ‘나’라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오온(五蘊)’이라고 답한다.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상하고 허망한 괴로움 덩어리이다. 모든 괴로움은 존재를 기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는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일묵, 2020: 302). 불교에서 존재란 무상한 경험적 실체다. 지각 활동에 의한 분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의식을 통해 ‘자아’라고 붙잡고 사는 것이 자기 존재이다. 법계에서 존재는 실체가 없는 무상함이고 허구이다. 무상한 허구의 존재 속에 상주하는 자아 또한 ‘참 나’가 아니므로 허구이다. 그러나 생로 병사를 겪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불교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나’라는 존재가 현상학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최훈동·신성웅, 2005: 754).

‘나’라는 존재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과 욕탐이 만들어 낸 관념을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나의 관념에 부합하여 세상을 규범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만든다. 나의 관념에 부합하여 만든 세상은 나의 가상세계(假像世界)이다. 내가 만든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현대의 나는 아바타(avatar)로 대체된다. 아바타는 원래 분신·화신을 뜻하는 힌두어로서 ‘내려오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아바(ava)와 ‘아래, 땅’이란 뜻을 가진 테르(terr)의 합성어다.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대체하는 캐릭터 혹은 그래픽 위주의 가상사회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가상 육체를 의미한다.

가상세계는 컴퓨터 안에서 3차원 영상을 통해 현실 세계와 같은 느낌을 주는 사이버 공간을 말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다르지만 현실 세계와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고창택, 2005: 20) 허구의 세계이다. 가상세계에서 인간은 심리 기저에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일부를 아바타를 통해 표현한다(박성희, 2004: 396). 여기에서 연구자가 말하는 가상세계는 사이버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개념, 관념에 부합하여 만든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대신에 완전하거나 자족감을 주는 이미지에 우리 자신을 투사하려 애쓴다(전현수, 2018: 80). 내가 어떠하다는 생각,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표상한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형상을 만들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나의 자아도 투영시킨다. 자아는 '나'라는 자의식을 부여받은 것으로 스스로를 형상과 동일시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이은정·임승택, 2015: 439). 이러한 욕구에 빠질수록 우리는 '참 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여 만든 아바타 속의 나는 진실한 내가 아니다. 아바타는 개인의 관념과 욕구가 표출된 형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담은 가상적 존재이다. 가상적 존재는 실체가 없다.

모든 고통은 '실체적 존재로서의 자기 있음'이라는 착각(無明)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아는 깨우쳐야 될 엄연한 현실이자 모든 고통과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되기도 한다(최훈동·신성웅, 2005: 755). '무아(無我)'는 어떤 견해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최훈동·신성웅, 2005: 761). 불교철학에서 무아(無我)를 강조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허무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다.

이상은 연구자가 리쾨르 해석학의 도움을 받아 불교상담 사성제 이론을 설명, 이해한 부분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환경(Umwelt)으로부터 하나의 세계(Welt)를 만들어 내는 모든 의미 작용을 우리의 상황에 대한 술어들 속에 끼워 넣는 것이다(김윤성·조현범, 2020: 74).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불교철학에서 바라본 존재론의 특성은 무상한 경험적 실체이며 불교상당 사성제를 통해 바라본 ‘나’는 가상적 존재라고 이해하였다. 다음 단락은 전유의 단계로 현대인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3. 존재의 본질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것 속에서 완성된다. 그리하여 이제 주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게 되거나, 또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김윤성·조현범, 2020: 189).

현대인은 각자의 고유한 존재를 망각하고 사회가 주입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곤 한다(박찬국, 2015: 81).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그리스 시대의 연극배우들이 쓰던 ‘가면’이라는 라틴어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말한다(권석만, 2019: 100). 연극에서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왕의 가면을 쓰고 하인의 가면을 쓰면 하인이 되는 것처럼 왕과 하인은 가면으로 표현된 인격일 뿐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 페르소나는 타인들이 정의한 나의 모습이다. 타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는 피상적인 삶을 살게 한다.

페르소나는 또한 자아가 외면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거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인간의 외적인 인격이다. 역할에 따른 외적 인격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이지만 페르소나에 대한 동일시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므로 타인이 주체인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함께한다.

분석심리학의 용어에 의하면 “페르소나는 가상(假相)이다”. 페르소나가 가상이

라고 하여 우리는 페르소나를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페르소나에 대한 집착이고 맹목적인 동일시다. 아바타 또한 실체가 없는 가상적 존재이다. 가상적 모습에서 찾는 행복은 물거품과 같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괴로움 중의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음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한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에서 나온다. 불교적 통찰의 실제적인 대상은 바로 자기 개념, 즉 자아의 표상적 요소이자 자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적 경험이다(전현수, 2018: 143).

현존재의 “존재 의미”는 “자신을 이해하는 현존재 자신”이다(이기상·구연상, 2008: 225). 현존재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고정된 속성으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현해야 할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하나의 과제로서 주어져 있다(박찬국, 2015: 83). 『붓다의 철학』에서 인간은 의지를 지향축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존이다. 공의 세계에는 존재는 없고 행위만 있다. 행위는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과 무제약적인 자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행위하는 현존’이 ‘존재하는 자아’로의 전락은 자유의 상실과 함께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귀착된다고 한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진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전현수, 2018: 67). 존재에 대한 불안정감은 완벽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결핍을 인정하기보다는 채워야 하는 과제로 삼는다.

우리는 아바타를 내세우는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네트워크 시대에 자신을 대체하는 아바타는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 동일시되어 ‘나’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IV. 결론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함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불타 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법정, 2010: 32).

묵은 업은 이미 다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싹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든다
(법정, 2010: 89-90).

불교철학에서 ‘나’라는 조건을 떠나서 인식되는 것에는 존재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존재라고 인식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만들어 낸 무상한 경험적 현상의 집합체이다. 무상한 경험적 실체를 나의 존재으로 착각하는 ‘나’는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낸 관념에 부합하여 나만의 세계를 만든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상의 모습에서 자신의 실체를 찾고자 한다. 인간은 완전한 이미지에 자신을 투영하여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빠질수록 진정한 자신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존재에 대한 불안정감을 갖고 있다. 불안정감에서 오는 괴로움은 그 실체를 들여다 볼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존재에 대한 불안정감은 완벽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결핍을 인정하기보다는 채워야 하는 과제로 삼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괴로움 중의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음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한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각자의 고유한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므로 타인이 주체인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

불교상담 사성제의 존재론적 해석은 현대인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자신을 투영하여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이다. 자신의 진실한 존재를 깨닫고 가상적 존재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숙고의 시간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각 목(2020). **초기불교 이해**. 경남: 서울불전연구원.
- 권석만(2019).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 고창택(2005). 사이버세계의 존재론. **철학연구**, 93, 1-25.
- 김석수, 김선희, 김성진, 노성숙, 박남희, 박은미, 이영의, 이진남, 이진오, 장영란, 정인재, 홍경자(2012). **철학과 상담 1: 왜 철학상담인가?** 서울: 학이시습.
- 김정현(2005). 니체와 불교의 만남: 니체의 불교 이해 및 서양적 무아(無我)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니체학회**, 8, 63-97.
- 김진(2003). 표상과 연기: 쇼펜하우어와 초기불교의 존재 이해. **동서철학연구**, 30, 167-196.
- 김말환(2007). 불교 상담의 방향과 그 실제: 차제설법, 근거와 방편, 수기설법을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10, 235-284.
- 김형록(2010). 고집멸도의 상담 및 심리치료적 이해. **한국선학**, 27, 307-344.
- 김홍미(2012). 사성제와 연기법의 결합에 대하여: 초기불전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35, 115-149.
- 나성욱김(2011). **붓다는 무엇을 말했나: 불교철학의 역사적 분석**. 파주: 한길사.
- 노안영, 강신영 공저(2019)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성희(2004). 사이버 공간의 대리자아 아바타의 역할 유형분석. **한국언론학보**, 48(5), 375-405.
- 박성희(2007). **불교와 상담**. 서울: 학지사.
- 박찬국(2015).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서울: 그린비출판사.
- 방기연(2000). **불교상담**. 서울: 조계종출판사.
- 법정욱김(2010). **불교 최초의 경전: 슛타니파타**. 파주: 도서출판 이레.

- 서 광(2018)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울: 불광출판사.
- 서광 편역(1997) **불교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불광출판부.
- 서명석(2002). 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존재에 관한 조월적 입론. **교육학 연구**, 40, 41-58.
- 서명석(2013). 『동몽선습』 오류 텍스트의 현대적 독법. **인격교육**, 7, 43-61.
- 서명석(2018). **철학상담&철학치료: 철학café**. 용인: 책인숲.
- 서명석(2019a). 『반야심경』의 교육적 의의: 고통의 치유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781-797.
- 서명석(2019b). **반야심경 워크북: 마음의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용인: 책인숲.
- 서명석(2015). **아동, 넌 누구냐?** 용인: 책인숲.
- 신승환(2005).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한 역사철학적 고찰. **하이데거연구**, 12, 109-136.
- 안옥선(2007). 불교에서 본 진리: 고통, 진리, 진리의 방편성. **범한철학**, 44, 1-24.
- 양영애(2015). 상담적용을 위한 사성제와 현실치료의 비교. **한국불교학**, 74, 349-380.
- 윤희조(2017) **불교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 윤희조(2019a). **불교심리학연구: 상담가를 위한 새로운 심리학**. 서울: 씨아이알.
- 윤희조(2019b). 존재론적 특징과 연결성으로 보는 불교 실존심리학. **동서철학연구**, 92, 215-239.
- 이규미(2019). **상담의 실제: 과정과 기법**. 서울: 학지사.
- 이기상, 구연상(2008). 『**존재와 시간**』 용어 해설. 서울: 까치글방.
- 이남경(2012). 심리치료를 위한 ‘아(我)’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한국선학**, 31, 223-256.
- 이부영(2018). **자기와 자기실현: 분석심리학의 탐구 3**. 파주: 한길사.
- 이시형, 율김(2017). **빅터 프랭클의 죽음이 수용소에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파주: 청아출판사.
- 이영의(2016). 고통 변증법. **범한철학**, 81, 124-143.
- 이은정, 임승택(2015). 무아의 치료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23, 427-458.

- 이장호(200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중표(2018)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서울: 불광출판사.
- 이중표(2019a).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서울: 불광출판사.
- 이중표(2019b). **불교란 무엇인가**. 서울: 불광출판사.
- 이중표(2020).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서울: 불광출판사.
- 인경, 이필원, 율김(2010). **심리치료와 불교**. 서울: 불광출판사
- 일 목(2020).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서울: 불광출판사.
- 정대성(2010). 칸트 사상과 불교 사상의 비교 고찰. **윤리연구**, 79, 277-297.
- 정학열(2018). 사성제를 통해 본 불교의 생사관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94, 181-205.
- 조기룡(2007). 인간소외와 불교상담, 그 만남을 위한 제언. **한국선학**, 18, 223-262
- 조성택(2016). 불교적 행복: 비판적 이해와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 **철학논집**, 44, 133-154.
- 조준호(2009). 무명(無明)과 공(空): 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불교학연구**, 24, 177-219.
- 조준호(2015). 초기불교에 있어 행복과 욕망. **불교학보**, 73, 93-115.
- 최경아(2010). 자아(self)와 개인(person)에 대한 정의 고찰: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28, 85-112.
- 최동훈(2016). 오온(五蘊)으로 본 정신적 고통의 원인과 치유 방안. **동서철학연구**, 82, 105-124.
- 최훈동, 신성웅(2005). 불교의 무아사상의 정신치료적 의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6), 754-762.
- 한상희(2018). 번뇌의 소멸과 해탈의 성취: 아라한의 심해탈과 해해탈에 대하여. **불교학 연구**, 57, 111-147.
- 한상희(2019). 초기불교의 중도와 무아, 그리고 공: 의미와 관계에 관한 일고찰. **불교학 연구**, 60, 1-29.
- 홍성기(2015). 연기의 구성주의 철학적 재구성. **한국불교학**, 73, 69-104.

- 황상민(2001). 사이버 공간의 자아, 그리고 사이버 정체성이 발달. *과학사상*, 38, 19-36.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2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Epstein, M. M. D. (1995). *Thought without a Thinker: Psychotherapy from a Buddhist perspective*(Revised ed). / 전현수 옮김(2018). *붓다의 심리학: 명상의 정신치료적 적용*. 서울: 학지사.
- Hartmann, N. (1968). *Neue wege der Ontologie*, Kohlhammer: Stuttgart. / 손동현 옮김(1997). *존재론의 새로운 길*. 서울: 서광사.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 전양범 옮김(2016). *존재와 시간*. 서울: 동서문화사.
- Ricoeur, P.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surplus of meaning*. Texas: Texas Christian Univ. Press. / 김윤성, 조현범 옮김(2020). *해석이론*. 파주: 서광사.
- Ricoeur, P. (1981).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윤철호 옮김(2017).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언어, 행동, 그리고 해석에 관한 논고*. 파주: 서광사.

A B S T R A C T

An 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ory of Buddhist Counseling by Four Noble Truths

Myoung-Ok Song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Ph. D.

Human beings can never be free from dukkha (suffering) from the time they are born to the moment they die. One of the sufferings that we face while living in modern times lies in not being able to love ourselves. The reason why people cannot love their existence is that they do not realize their true existence. This thesis aim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I”, for those who have to live a life with dukkha, in terms of existence through the four noble truths of Buddhist counseling. In the process, the researcher used both estrangement and the concept of explanation, understanding, and appropriation of Ricoeur’s theory of interpretation as tools and chose *Buddha’s Philosophy* as a text.

Everything that is recognized as an existence in Buddhism is a

phenomenon of interactions that are born and die constantly on a fleeting temporal continuum. The non-constant, continuous, and permanent empirical real self that is created with one's heart by taking the phenomenon of repeated birth and death as one's own is my own existence. The life in which a non-constant, continuous, and permanent empirical real self is mistaken for one's own existence cannot escape dukkha. However, humans in reality tend not to acknowledge the impermanence, called anicca (Pāli) or anitya (Sanskrit), of existence. In the course of life, people consider the ideas generated by experience and greed to be theirs, and they create their own world corresponding to their own ideas. In such an illusory world, people try to find their true selves from the imaginary image shown to others, not in the original image of oneself.

The more humans indulge in the desire to gain satisfaction by projecting themselves into a perfect image, the further they move from their true existence. The 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our noble truths allows people to realize that modern people lose sight of their true selves by projecting themselves into an illusion that has no real shape. In addition, it provides a time for reflection which enables people to realize their true existence and live their own lives, escaping from the obsession with their delusional existence.

※ Key words: Buddhist counseling, ontology, dukkha, no-self, and four noble truths